

# 누구나 사기의 표적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진실을 신뢰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의 미덕이지만 낯선 상황에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덜 받아들이고, 더 확인하라’는 격언이 있듯이, 특히 금전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거나 갑작스레 긴 급한 요구를 할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스스로 자문하며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친한 지인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오더라도 한번 의심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사기의 시작을 막는 첫걸음이다.

사기 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도 사기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학력이나 지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한 순간의 방심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사기 예방은 시작된다.

‘나는 관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낙관은 매우 위험한 함정이다. 많은 사람이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낙관 편향’이라 불리는 심리적 함정이다. 낙관 편향이 나쁜 일은 남에게 일어나고 나는 관찮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다. 한 연구에서 성인 2000명에게 ‘당신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남들보다 낮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83%가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기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라고 믿는 사이, 정작 사기 시도는 우리 모두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금융 분야에서 일하던 30대 회사원 A씨는 자신이 누구보다 사기 뉴스를 잘 챙겨 보고 대비한다고 믿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오는 피싱 문자쯤은 가볍게 무시할 줄 아는 센스를 가졌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다니던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는 그만 큰 피해를 보고 말았다. 상대방은 A씨의 이름, 직책, 심지어 최근 거래 내역까지 줄줄이 대며 전화를 해왔다. A씨는 ‘아는 은행 직원이니 문제 없겠지’라고 안심했다. 알고 보니 그 정보들은 모두 해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을 통해 미리 수집한 신상 정보였다. A씨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면서도 ‘살마이 사람이 가짜일 리 없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그리고 곧바로 ‘당신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니 안전계좌로 옮겨주세요’는 말에 속아 자신의 돈을 몽땅 이체하고 말았다. 평소 ‘나는 안 당해’하며 자신만만하던 태도가 오히려 함정이 되어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그 과신 때문에 기본적인 의심과 확인조차 소홀히 한 셈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 연인은 절대 날 속이지 않아’라는 낙관에 빠져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라지는 로맨스 스캠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제 3자가 보기에는 수상해 보이는 정황인데도, 정작 본인은 ‘우리 사랑은 진실된 거야’라고 믿어 버리고 주변의 만류를 듣지 않는 일이 많다.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들은 사람들의 이런 과신을 노린다. 과도한 자신감 대신 건강한 의심과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기를 멀리하는 지혜가 생긴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 현실성 없는 중·대형 전기트럭 보조금 지원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정부의 2050 넷제로 목표에 맞춰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비를 투입했지만 정부 지원 부족으로 시장 자체가 고사 위기에 빠졌다.”

국내 상용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만난 상용차 업계 관계자는 1천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해 중대형 전기화물차를 만들었지만 정부의 ‘생생내기식’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의 벽에 막혀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전기화물차와 수소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

하고, 국토부 차급 기준 중형(적재중량 1.5~5톤)과 대형(5톤 이상) 전기화물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형급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에는 최대 60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이 책정됐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심이던 상용차 전동화 정책이 중대형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는 분명하다.

하지만 중대형 전기화물차 시장의 가장 큰 장벽은 여전히 가격 구조다. 중대형급 전기화물차 기준 5톤 적재 카고 내연기관 차량은 약 8000만~9000만원 수준인 반면, 최대 보조금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삼원계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화물차는 차량 가격이 3억 1000만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중앙정부 보조금 최대 60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최대 6000만원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시장에서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중대형 전기화물차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정책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정부가 수소전기트럭에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정책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추가되면 실제 혜택은 더 커진다. 동일한 상용차 영역에서 운행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수소전기트럭과 비교해 보조금 격차가 크다는 지적은 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진 인프라와 소비 형태를 보면 수소전기트럭보다는 전기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게 시장 변화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아 ‘도로 위 미세먼지 공장’으로 불리는 중대형 디젤트럭이 친환경 트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정책 조정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l/ysw@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6일 (음 1월 18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쉽게 말했다가 쉽게 후회합니다. 60년생 누군가를 추천하는 일이 생깁니다. 72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4년생 타인의 힘이 필요로 하는 하루입니다.



49년생 성과는 후에 골고루 돌아옵니다. 61년생 음양의 조화가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73년생 작은 선물로 사랑하는 감정이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85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50년생 자만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62년생 스스로 적당한 때에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74년생 오랜 고민이 해결됩니다. 86년생 기운이 강해 주변사람들이 압도당합니다.



51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세요. 63년생 얼마전부터 바라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75년생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융통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52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64년생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88년생 조그만 인연이 많은 날입니다.



53년생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입니다. 65년생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시켜 보세요. 77년생 평소와 다른 애정표현이 필요합니다. 89년생 그룹에 행운이 따르는 운이 있습니다.



54년생 모임에서 뜻하지 않은 행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66년생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78년생 열정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90년생 늦은 귀가는 절대 피하세요.



55년생 대인관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67년생 경계감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79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신경을 쓰세요. 91년생 거짓말은 바로 들리게 됩니다.



56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중하기 어려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80년생 하는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92년생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관찰해보세요.



57년생 과로로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69년생 두뇌회전이 빠른 하루입니다. 81년생 도전정신이 왕성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93년생 최근에 만난 사람을 조심하세요.



58년생 사방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70년생 노력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82년생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94년생 여행을 계획했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59년생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71년생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83년생 허황된 꿈에 빠지지 마세요. 95년생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 김상회의 四季

## 운명 예측도 AI가



요즘은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보면 모든 주제에 대해 막힘없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운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올해 신수 좀 알려줘, 내 사주에 관해 설명해 줘! 하고 명령을 하면 죄악~ 하고 설명해준다. 필자 역시 호기심과 함께 실험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AI에게 사주 감명을 물어본 적이 있다. 결론은 깊이 있는 통변까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주명조의 원리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기본적인 설명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필자가 대조해 본 결과, 인간의 운명예측을 표피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야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겠다 싶기도 하다.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군에서는 AI의 등장으로 근로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 미국에 다녀온 한 신도분은 무인 자율자동차인 ‘웨이모 택시’를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며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는 도로에 운전석이 빈 차가 이리저리 잘도 다니는 것을 보고 공상이 현실이 된 것에 신기함보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현존하는 직종들 중에서 사라질 우선순위를 매기는 유튜브를 본 적도 있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타격받을 직군이 하나둘이 아니니 어쩌면 종교인이나 명리학자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인간의 오랜 역사가 시작되고 동시에 아직 견고(?)하게 이어져 온 업종이 있다면 바로 인간 운명예측 아닐까? 인간은 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할 때는 풀 한 포기보다도 심약하다. 섬세한 해석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이다. 그냥 재미 삼아 보는 것으로 인생의 진퇴에 대한 해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우선 자신의 사주명조를 잠시라도 감명한 후 경감과 회피의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삶의 지혜라 볼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6		7		3
	4	9	4	8	1
5			9	3	
	7	1	2	6	
		3	7		2
7				9	5
		2	5		
9		2		6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2	3				4
	8		9		1 3
		9		8	2
	7	3			
	5	6	4	9	8
			1	3	
	8	4		6	
5	7		8		4
4					5 8